



헬무트 베어  
Helmut Wehr

학교발전을 위한 생명애호적 대안

## 사회변화—2차적 근대와 ‘자유의 아이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학문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정치·경제·문화·사회 각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구조와 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환경의 변화를 통해 개인 자체가 변하기도 한다. 이로써 각자의 고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나지만 이 가능성은 또한 의무로서 강요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한 개인의 평범한 생애가 선택적·조작적·모험적·단절적·파괴적 생애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개인의 고유한 삶은 곧 개인의 고유한 실패로 변한다. 개별 인간들은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세계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영위하고자 애쓰지만 이 세계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이나 거대기업들 간의 경제적 연계, 통신망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도쿄나 뉴욕의 주가변동이 프랑크푸르트 증시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의 변화는 생산의 변화와 이동, 그리고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화된 시장에 종속되면서 인간의 고유한 삶은 전통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제 고유한 삶이라는 사회구조를 가능케 하려면 지속적으로 차별화와 개별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제 개인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sup>1)</sup>

사회의 변화는 가정·유치원·학교·병원·직장 등과 같은 사회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일생에도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여기에서 잠깐 변화된 유년기의 개별 측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형제 없이 홀로 자라는 아이를 예로 들어보자.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밀도는 높겠지만, 이는 따뜻함뿐만 아니라 차가움도 집중되는 양면적 현상을 지니고 있다. 홀로 자라는 아이의 경우 외에도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이나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의 숫자가 증가한 것도 유년기 변화 양상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부모들은 더 불안해하며, 자율과 제도적(교육적) 보호 사이의 괴리뿐만 아니라 성취에 대한 부담감과 ‘교육학적·치료학적 영역’ 사이의 괴리 등도 생겨난다. 아이들에게는 점차로 TV·비디오·컴퓨터게임 등<sup>2)</sup>을 통한 2차적 경험이 직접적 경험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도 1회용 정서나 친구를 사귀는 태도의 변화, 즉 어떤 목적을 위한 사회적 접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적 태도 같은 것들이 파고들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환경이 위협받고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공간 및 시간 체험(고립화)과 삶은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아이들의 삶에 전통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자유가 증가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유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안정적 지향성의 상실과 불안감의 증폭을 가져왔다.<sup>3)</sup>

이렇게 새롭게 대두된 다양성의 위험은 비단 그것이 초래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위험은 증가된 다양성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회제도의 무능력 속에도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를 사악한 것으로 거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산물로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개인주의를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개체화한다. 이는 청소년의 ‘일대기 만들기Biographisierung’라는 개념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 개념은 능동적이 되고, 스스로 쟁취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실현만이 문제가 아니라 ‘잡동사니 정체성Patchwork-Identity’을 통한 자아발견 또는 자아발명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신의 고유한 삶이 이제는 일상에서 드러내는 행동·연출·자기표현 등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일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과중한 요구이자 엄청난 스트레스의 증기를 의미하기도 한다.<sup>4)</sup>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사태파악을 못하는 어른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개인적 자유를 힘겹게 획득하고

1) U. Beck, 1996.

2) 《매체 유년기Medienkindheit》, H. von Hentig, 1984.

3) U. Beck 및 E. Beck-Gernsheim, 1990; E. Nyssen 및 B. Schön, 1995, p.57 이하.

4) K. P. Fritzsche, 1998.



방어하고 안정시키고자 한다.

올리히 베크가 말하는 개인화의 가능성은 곧 자유로운 활동공간의 증가, 더욱 커진 유연성, 민주화, 그리고 의무와 안정의 가치에 우선하는 자아실현 가치의 강조를 뜻한다. 이와 관련된 기회나 위험에 관해서는 본받을 만하거나 본받아서 안 될 어른들의 삶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어른들의 삶은 취업노동 분야의 위기, 실업, 구조조정과 고용감축, 고용불안, 그리고 전세계적인 환경문제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더 이상 어른들만이 지고 있는 삶의 짐이 아니다. 청소년들도 더 이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보호공간에 안주하면서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지불유예’ 기간으로서의 청소년기의 의미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이제 청소년기의 중심문제가 되었다. 직업사회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일생 중 사회에 대한 준비시기로서의 청소년기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제12차 ‘셀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체성 발견, 파트너 선택, 독립 등과 같은 이른바 ‘전통적인’ 교과서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노동문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현재의 대량실업, 교직부족, 사회보장 축소, 빈곤화 등의 문제가 정치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가까운 장래에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청소년들을 당혹스럽고 회의적으로 만든다. 청소년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정책에서도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권위적인 의사소통 구조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sup>5)</sup>

5) 독일 셀 주식회사의 청소년사업, 1997, p.11 이하.

근대화의 2차적 현상은 청소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청소년기는 고유한 경험과 삶의 방식을 지닌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며 각자의 생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집단 위상의 해체 경향과 청소년들 스스로의 ‘일대기 만들기’는 탈구조화와 개인화라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탈구조화란 성인 연령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서로 관련이 없는 부분 단계들—각각의 부분적 단계들은 고유한 외형과 시간구조를 갖고 있다—의 나열로 되어 있어 불연속적으로 쪼개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개인화란 ‘인간의 생애란 주어진 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고, 선택에 의해 좌우되며, 또 각 개인에게 부과된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sup>6)</sup>

수많은 연구결과는 오늘날의 청소년기가 점점 더 위협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심신장애, 사회심리적 문제, 공격적이고 범법적인 태도, 마약이나 약물 복용 같은 건강을 해치는 행동 등은 ‘생물적·심리적·사회적 긴장상태’의 증후이다. 이는 오늘날의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 성장조건이 그들에게 더 큰 유연성과 수용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개별적인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sup>7)</sup>

위와 같은 사회화와 성격학적 현상을 동반하는 사회적 방향 상실의 문제 이외에도 청소년의 일탈과 폭력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사회심리학적 주요 요인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분 전환거리로 환영받는 폭력, 스틸, 반항, 쾌감 등과는 대조적인 권태

6) U. Beck, 1986, p.216.

7) 《교육학Pädagogik》 제7-8호, 1990; U. Beck 및 E. Beck-Gernshein, 1994.



의 확산과, TV·비디오·컴퓨터·인터넷 등과 같은 뉴미디어의 영향이다. 이런 매체들은 폭력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무감각하게 만든다.<sup>8)</sup> 《인간 파괴성의 해부》<sup>9)</sup>에서 프롬은 ‘흥분과 자극’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보고 있다. 프롬은 인간이 반응만 하게 만드는 ‘단순한 자극’과 능동적이 되게 하는 ‘능동적 자극’을 구분한다. 프롬은 현대 산업사회를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비판하면서, 인간이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주는 능동적 자극, 즉 내적·외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자극이 오늘날 점차 단순한 자극, 즉 수동적 자극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이러한 ‘단순한 자극’들만을 상대하게 된다. 여기서는 성욕·물욕·사디즘·파괴성·나르시시즘 등과 같은 본능만이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극들은 영화·TV·라디오·신문·잡지·소비시장 등을 통해 전달된다. 대체적으로 모든 광고는 사회에 의해 생산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모두 ‘단순한 자극에 대한 직접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이라는 동일한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자극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항상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10)</sup>

능동적 자극의 결핍과 과잉소비로 인해 좌절감이 만연되고 결과적으로 권태와 만성적 우울증이 나타나는데, 프롬은 이를 ‘정상성의 병리학’<sup>11)</sup>이 갖고 있는 근본적 특징으로 보았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

8) H. Johach, 1994, p.134 이하.

9) E. Fromm, 1973a, GA VII, p.214 이하.

10) E. Fromm, 1973a, GA VII, p.217.

11) E. Fromm, 1955a, GA IV, p.13 이하; 1973a, GA VII, p.220 이하.

상성의 병리학이 지닌 기계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성이 상쇄된다.

충분히 보상되지 않은 권태가 초래하는 특히 위험한 결과는 폭력성과 파괴성이다. 이런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대부분 수동적 형태로 표출된다. 즉, 사람들은 범죄와 사고 등 끔찍한 사건에 끌리게 되고 언론·라디오·TV 등은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내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뉴스에 탐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 야만 빨리 흥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내적 활동 없이도 자신의 단조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성의 묘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할 때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조로움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간과한다. 사실 폭력과 잔혹한 장면으로부터 수동적인 쾌감을 얻는 것과, 가학적이거나 파괴적 행동을 통해 능동적 자극을 만들어 내는 것 사이는 한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타인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조롱하는 데서 느끼는 ‘단순한’ 쾌감과, 린치를 가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 사이에는 단지 양적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sup>12)</sup>

직접적인 경험의 결여로 인해 야기된 권태는 주변에서 제공되는 소비와 ‘체험’을 통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각성과 계몽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것은 ‘정상성의 병리학’<sup>13)</sup>뿐이다. 이는 프롬의 신랄한 표현에 따르면 경미한 정신분열증이다. 알코올이나 커피·니코틴 중독, 일 중독, 대인관계 중독 등과 같은 중독적인 소비습관이나 극단적인 레저활동은 사회적으로 근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12) E. Fromm, 1973a, GA VII, p.224.

13) E. Fromm, 1955a, GA IV; p.13 이하; 1991e [1953], GA XI, pp.211-266.



는 것이다. 즉, 관계, 초월성, 정체성 확인, 지향성의 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의 경험 등과 같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소비성향과 성적 요소의 결합은 성적 욕구를 자극시킴과 동시에 만족을 거부하게 만든다. 마르쿠제<sup>14)</sup>는 이것을 ‘억압적 탈승화脫昇化Repressive desublimation’<sup>15)</sup>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병리학적 상황은 생산적 성격지향성을 심어주고 사랑에 기초한 연대감, 계몽적 이성, 창조적 노동 등을 실현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분석심리학에서 역동적 의미로 쓰이는 ‘성격’ 개념은 인간의 욕구가 특정 사회의 특정 존재방식에 역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인간적 에너지가 발휘되는 특별한 형식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성격은 개별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

사회적 성격의 개념은 우리가 각 개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완전히 또는 강력하게 개인화된—실제로는 유일한—성격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적 성격이란 특정 집단에 공통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구조에 적응하면서 생겨난 특징적인 성격 요소들로 이루어진 증상들, 즉 성격의 모태를 말한다.<sup>16)</sup>

위험한 자유의 시대를 살며 불안해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외형상의 안정과 지향성을 다시 얻는 방법으로 ‘자유로부터의 (새로운) 도피’라는 대

14) Herbert Marcuse : 1898~1979. 독일 출생의 미국 철학자, 사회사상가.  
15) H. Marcuse, 1972, p.76 이하.  
16) E. Fromm 및 M. Maccoby, 1970b, GA III, p.254; E. Fromm, 1941a, GA I, p.380.

안이 제시된다.<sup>17)</sup> 학습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어진 도전을 극복하는—주어진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자유 대신에 폭력과 파괴·중독·과격주의·이기주의·나르시시즘·권위주의·소비주의 등의 상황으로 도피하는—다시 말해, 주어진 대상으로부터 회피하는—자유를 모색한다.

이러한 불안감은 학교의 기능에 의해 더욱 고조된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사회체제의 대기실로 들어가는 열쇠일 뿐이다. 대기실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고용체제로 들어가는 열쇠를 나누어준다.’<sup>18)</sup> 어떤 규칙과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고용분배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혼란스럽고 불분명해졌다.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노동의 기회를 연속선상에서 계획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결정기준은 대부분 불투명하다. 새로이 익힌 지식은 단시일 내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PC·TV·통신·영상매체 등과 같이 경제에서 이용되는 새로운 생산기술을 학교에서 익히길 기대하긴 어렵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규학교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생상學生像은 고용체제에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한 질서·단정함·세심함과 같은 덕목을 갖춘 학생이다. 학교교육은 외우고 반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19)</sup> 언어와 책을 통한 지식, 그리고 교사에 대한 복종은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하는 자명한 ‘덕목’이다. 학습능력과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주는 것이 각 개인을 특성화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 결과 아이들은 생산적 성격지향성이 아닌 비생산적 성격지향성으로 육성되는 것이다.

17) E. Fromm, 1941a, GA I, p.217 이하; K. P. Fritzsche, 1998, p.27 이하.  
18) U. Beck, 1986, p.245.  
19) 《교육과 학문Erziehung und Wissenschaft》, 제6권, 1998, p.2 이하.





2차적 근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런 교육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개인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회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하며, 조직능력과 임기응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장애물을 인식하며,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할 줄도 알아야 한다. 주도적 행동, 강인함, 유연성, 위기관리 능력 등이 필요하며’<sup>20)</sup>, 또한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과 자유를 감당할 능력도 필요하다.<sup>21)</sup> 따라서 교육에 대한 개념 역시 필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훔볼트<sup>22)</sup>적 인문주의 이념에 입각한 고전적·인식적 교육은 더 이상 극우화 추세나 세계화에 따른 문제, 실업, 환경재앙 등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의 대리인으로서 사회적 성격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성격의 개념은 일반적인 심리적 에너지가 특수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이와 같은 심리적 에너지의 변화는 각각의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sup>23)</sup> 오늘날 학교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많은 강제요소들을 떨쳐버리긴 했으나, 이젠 오히려 자식에게 지나치게 많이 먹이려는 모성의 특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지루한’ 학습이라는 음식을 삼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나중에 직장이나 시장, 또는 공공생활에서 필요한 개개의 정보를 담은 지식을 속성 교수법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제는 개개의 정보라는 재화를 소유하고, 이를 머리에 넣어

20) U. Beck 및 E. Beck-Gernsheim, 1994, p.15.

21) K. P. Fritzsche, 1998, p.145 이하.

22) Wilhelm von Humboldt : 1767~1835. 독일의 언어학자, 철학자. 외교관으로도 활약했으며, 교육부 장관이었던 1809년에 베를린 대학의 설립을 제안했다.

23) E. Fromm 및 M. Maccoby, 1970b, GA III, p.255.

두는 것이다.<sup>24)</sup> 또 학습내용은 교사에 의해 ‘입맛에 맞게’ 잘 준비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과 그를 통한 자아발전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sup>25)</sup> 프롬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어린이들은 종이조각·나무·돌·의자를 비롯하여 손에 들어오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여섯 살이 되어 교육의 쳇바퀴에 들어가게 되면 고분고분해지고,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능력이 없어지며 수동적이 된다. 또한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반응’만 하면 되는 그런 자극들을 요구한다. 점점 더 복잡한 장난감을 원하지만, 그 장난감 역시 조금만 지나면 지루해진다. 간단히 말해서 성인들이 자동차, 옷, 여행, 섹스 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sup>26)</sup>

그 결과 현실을 직시하는 비판적 의식이 결여되고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회의 정태적靜態的 조건들이 점점 굳어지게 되면, 중국에는 이 조건들이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된다. 이런 과정은 무관심, 무리의 형성, 약자에 대한 핍박, 제멋대로의 행동, 동기 결여 등과 같이 학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에서 잘 알 수 있으며, 이제 수업시간은 맹수를 조련하는 시간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제도로서의 학교의 ‘끼워맞추기’식 교육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유년기나 인간 사회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요구에도 부합하지

24) E. Fromm, 1976a, GA II, p.293 이하.

25) E. Fromm, 1989a, GA XII, p.412.

26) E. Fromm, 1973a, GA VII, p.218.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개체화되고 다원적이며 서로 유연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아이들이 여전히 경직된 제도적 강요 속으로, 예를 들어 추상적 언어를 사용하는 교사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복종하는 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sup>27)</sup>

### 변화된 자질 구조—변화된 학습과 교육

‘사회의 한 기능’으로서의 학교교육은 사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자질을 키워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노동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최종 학교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능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또 다른 기능은 선별기능이다. 이것은 현재의 학습이나 행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학교의 특정 학습과정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성과원칙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시기에는 배치의 기능(시장수요에 따라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권장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반면에 정체나 침체의 시기에는 선별적 조치가 우선시된다.

학교가 사회 전체적 재생산에 기여하는 또 다른 기능은 볼프강 클라프키 Wolfgang Klafki가 언급했던 문화계승과 문화발전의 기능이다. 이때 학교의 문화계승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한 것이어야 하며, 세대간의 합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27) H. J. Apel, 1995; E. Nyssen 및 B. Schön, 1995, p.130 이하.

심어주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적응기능 이외에도 혁신기능이 좀더 확실하게 중심에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아동들에게 공통적인 제도인 학교에서만 공통분모를 먼저 찾은 후에, 그 위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p>28)</sup> 이런 공통분모는 ‘인간적인 학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자질을 키워주는 기능이 총체적 의미에서 학교의 선별기능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며,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sup>29)</sup>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의 학습 및 교육 목표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시되는 핵심 자질과 기본 능력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능력(즉, 팀워크 능력), 개인적·사회적·역동적 능력, 창조성, 혁신성, 유연성, 지향점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교육과 직업의 자질은 더 이상 일관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30)</sup> 그러므로 여기서는 프롬이 말한 ‘실존적 욕구 Existent desire’<sup>31)</sup>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학교는 교육적 결손을 보완하는 문제와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의 경계선 상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프롬이 제시하는 교육개념이 이러한 시대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프롬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

28) E. Nyssen 및 B. Schön, 1995, p.134 이하.

29) H. von Hentig, 1976; R. Olechowski, 1998, p.23 이하.

3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학교와 직업교육 연구소(ed.) 1997; R. Olechowski, 1998, p.29.

31) E. Fromm, 1973a, GA VII, p.207 이하.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주는 것이다.(영어의 education, 즉 교육은 ‘e-ducere’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직역하면 ‘꺼내다’ 또는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끄집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의 반대말은 조작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른들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입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억눌러야만 아이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로봇을 신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로봇은 펼쳐야 할 인생이 없기 때문이다.<sup>32)</sup>

생명애호Biophile, 즉 ‘삶의 기술’로서의 생명에 대한 사랑은 설득력 있고 믿을 만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sup>33)</sup>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육의 개념과 달리 전인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아를 형성시키는 ‘학습’의 개념은 스스로를 책임지고 또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나가는, 평생에 걸친 지속적 과정이어야 한다. 학습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개인의 각각의 욕구들은 육체·심리·사회·지성을 모두 망라하는 총체적 의미를 띠고 다가오게 된다.<sup>34)</sup> 이때 학습과정 자체가 학습자의 자율적 책임감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학습과정을 마련하는 책임은 교습자, 즉 학교와 부모에게 있다.

이로부터 ‘좋은 학교’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나온다.<sup>35)</sup> 좋은 학교의 의무는 빨리 낙후되어 버리고 마는 교과서식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전인적 학생을 길러내는 데 있어야 하므로, 학교는 마치 한

손의 다섯 손가락처럼 만남과 축제와 공부와 놀이와 대화가 활기차게 하나로 통합되는 장이어야 한다. 좋은 학교는 탐구하고 경험하고 구성하고 묘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즐기고 휴식하고 규칙을 만들고 따르는 등의, 학생들이 지닌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열린 수업’의 프로그램은 자유 작업, 주별 계획 작업 또는 여러 과목을 넘나드는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등과 같은 자유로운 학습형태를 지향해야 한다.<sup>36)</sup> 열린 수업의 목표는 배움의 인간화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학습의 중심에서 있는 것은 학생들과 그들의 욕구이다. 새로운 것의 인식, 학습, 관심,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친밀한 관계, 타인과의 교류, (해결 가능한) 갈등의 체험, 자기표현, 자아발전, 능력증진,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 확인, 안정과 지향성을 얻는 방법과 한계에 대한 인식 등이 그것이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높은 자율성이 있어야만 한다.<sup>37)</sup>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려면 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내용적·방법적·조직적 측면에서 학습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많은 학교의 학급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율과 합의를 보면 학습이라는 영역에서도 합의를 통해, 다시 말해 공동의 논의를 통해 규칙이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핵심 자질’을 키워주어서 학생들이 자신감과 사회적·전문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요구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

32) E. Fromm, 1956a, GA IX, p.513.

33) E. Fromm, 1976a, GA II, p.269 이하; A. Cohen, 1990, p.42 이하.

34) A. Cohen, 1990, p.53 이하.

35) 《교육과 학문Erziehung und Wissenschaft》, 제11호, 1994, p.7.

36) D. Hintz, K.G. Pöppel, J. Rekus, 1995, p.246; W. Wallrabenstein, 1997.

37) K. Garnitschnig, 1998, p.7 이하.





정과목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성공적인 학습과정을 위해서는 지능뿐만 아니라 학업태도·학업기술·행동·생각·동기 등도 중요하다고 전제한다면, ‘학습하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생긴다. 학습기술은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관지어서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각 과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다양한 실제 적용사례들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독립적 작업을 가능토록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독립적으로 학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 한편으론 내용적·주제적·방법론적·제도적으로 개방되고<sup>38)</sup> 개인화된 수업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가능한 한 일찍부터 독자적이고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쌓아야 하며, 학습이 결코 ‘처방전의 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학습은 개인적 경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에는 또한 대화와 경청의 규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확한 주제와 문제 제기, 건설적 질문방식, 솔직한 진술, 짧고 명료한 표현방법의 사용, 할당시간의 엄수, 일목요연한 구성과 압축된 결론 등을 익히게 된다.<sup>39)</sup> 이와 같은 것들을 합의의 통해 정하고 대화와 경청을 연습한다면 긍정적인 대화문화가 확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수업 목표에 짜맞추어지는 대화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촉진된다. ‘집단과 함께 생산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적으로 작업’<sup>40)</sup>하게 되기 때문이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교과보다 ‘인간이 우선되는’<sup>41)</sup> 학교를 만드는

38) J. Rekus, 1994; D. Hintz, K.G. Pöppel 및 J. Rekus, 1995.

39) 《교육학Pädagogik》, 제2호, 1992, p.44 이하.

40) E. Fromm, 1989a, GA XII, p.417.

것은 주체 중심적 학습문화와도 관계가 있다. 이는 폰그라츠<sup>42)</sup>와 프레더킹<sup>43)</sup>이 말한 것처럼 배움의 태도와 세계의 주관적 재구성,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한 활기찬 습득 등이 중심에 놓여 있는 학습문화를 의미한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동료 학생’<sup>44)</sup>에 대한 학습 상담자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능력과 의욕이 기반이 된 ‘진지한 지식’<sup>45)</sup>이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협동적인 학습이나 ‘학습하는 것을 학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

학습방법의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정밀한 작업기술의 습득이나 대화능력,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동방식에 관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력감을 제거하거나 속수무책인 상황을 방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 이때 긴장완화 훈련과 집중훈련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sup>46)</sup>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사회의 중심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개념이다. 그 능력 안에는 자아발견의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 긴장완화 훈련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자율적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학교의 많은 문제들은 특히 대중매체·가정·주거상황 등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집중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 교실 내부의 이런 소란함과 산만함은 적절한 게임을 통해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의적인 환상, 그리고 성숙한 내면 성찰 등의 요소들을 계발시키고,<sup>47)</sup> 각 개인의 고유한 존재의식

41) E. Fromm, 1960a, GA V, p.35.

42) L. Pongratz, 1991.

43) Volker Frederking, 1994.

44) E. Fromm, 1968a, GA IV, p.345.

45) E. Fromm, 1989a, GA XII, p.412.

46) K. P. Fritzsche, 1998, p.145 이하.



과 창의적 표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화문화 역시 학생들의 학습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억력에 관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어를 통해 표현해 본 학습내용은 단순히 청각적 채널을 통해 수용된 것보다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기억된다고 한다.(학습내용을 기억하는 정도는 듣고 읽는 경우에는 20~30%에 불과하지만,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최고 70%에 달한다.)

따라서 학습이론에서 볼 때 자발적인 학습이 개인에게 더 효과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효과적인 학습기술은 학생들이 외부의 도움에 덜 의존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주체로서의 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작은 보상을 곁들인 휴식은 학생들에게 재충전 효과를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정 리듬에 맞추어서 학습하고, 일(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형성하거나 높이는 데는 대화와 긴장완화 훈련이 특히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중에 학생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를 재미없어하는 현상이 있긴 해도, 특히 10~12세의 아이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열의와 인내력을 갖고 학습에 임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자기계발 능력이 학교에서의 학습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7) A. Cohen, 1990, p.72 이하.

## 교사의 의미

열린 학교는 교사의 전통적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교과내용의 전달자, 교육자, 학습성과의 평가자, 학교와 관련된 문제의 상담자로서의 교사상(教師像)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학습문화에 대한 책임감, 자신에 대한 책임감, 자기제어,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지식적·교육적·방법론적 능력, 협력과 팀워크 능력 등을 가진 교사라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교사상의 변화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 능력이 발전되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행위의 전제조건인 교육적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또는 '학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동료로서의 교사가 되기 위한 구조적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동료로서 행동하고 공동으로 계획하기.
-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분명한 목표와 수준 높은 기대치를 정하고 지키기.(교육적 규범)
- 합의 도출하기.(교육적 합의)
- 분명하고 정당한 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규정과 규율 정하기.<sup>48)</sup>

이 네 가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학생들의 책임감은 강해지고 학교와의 일체감도 높아진다.<sup>49)</sup> 이에 근본이 되는 토대는 '경청의

48) 《교육학Pädagogik》, 제4호, 1997, K. Garnitschnik, 1998, p.6.

49) W. Schwark, 《교육과 학문Erziehung und Wissenschaft》, 제1호, 1993, p.11.



기술'을 잘 구사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을 갖게 되고, 타인의 체험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로틱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이해로 가는 문은 잠겨 있게 된다.<sup>50)</sup>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육학적 사랑은 '아버지적'인 사랑과 '어머니적'인 사랑의 균형, 즉 책임을 부여하는 현실적인 요구들과 무조건적인 사랑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 현실화된다.<sup>51)</sup> 이와 함께 교사의 권위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의 권위는 개인적인 우수함이 드러나거나 토론 등에서 모범적이고 탁월한 면을 보여주는 등, 존경받는 사회적 선배로 행동하는 데서 발생한다.<sup>52)</sup> 이렇게 되면 '불복종'은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일부가 된다.

'모든 가능한 방식과 수단을 사용하여'<sup>53)</sup> 여유로운 의사소통이 진행된다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가 수업에서 더 많은 만족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클수록 동기부여, 자신에 대한 신뢰, 단체활동 능력, 독립성, 그리고 학습성과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학교와 학교공부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할수록 수업도 조화롭고 건설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50) E. Fromm, 1991d, GA XII, p.366.

51) E. Fromm, M. Maccoby 공저, 1970b, GA III, p.458 이하; A. Cohen, 1990, p.78 이하; H. Scarbath, 1992, p.19 이하.

52) E. Fromm, 1976a, GA II, p.298 이하; 1963d, GA IX, p.367 이하.

53) E. Fromm, 1955a, GA IV, p.242.

이는 좋은 학급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학급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며 대화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또한 교사의 직업적 만족도 역시 커지며, 심신의 쇠락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급기관의 지원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학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야에서도 휴머니즘에 입각한 프롬의 심리분석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담은 명백히 심리치료의 방법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2차적 근대에 부합하는 교사상에는 파트너적 학습문화, 자기제어와 책임감, 교육학적 (학생 중심적) 기본태도, 창의력, 신뢰성, 감정이입, 갈등해결 능력, 전문적이고도 교육학적인 능력, 방법론적 능력, 상담능력과 매체를 다루는 능력, 협력과 단체활동 능력, 친환경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과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일에 대한 에너지와 의욕을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성의 계발이 꾸준히 요구된다.

이런 생각의 기초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에리히 프롬의 인간관이다. '대부분의 부모에게 아이들은 삶의 풍요가 아니라 부담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는 좀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에 반대되는 생명애호적 명제인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잘살기'<sup>54)</sup>의 방향으로 '타이타닉호의 뱃머리를 돌리는 일'<sup>55)</sup>을 해야 한다. 제도로서의 학교는 기술 만능주의적이고 행정적인 체제의 강요에 굴복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총체적 해결방안이 다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이 단지 교육적이고 방

54) O. Herz, 1996, p.16; E. Fromm, 1976a, GA II.

55) 《교육과 학문Erziehung und Wissenschaft》, 제3호, 1998, p.6; H. Wehr, 1997.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법론적인 기술을 전수받거나 지식정보를 제공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험교육학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공동체 체험’을 강조한다. 체험 중심의 학습에서는 느낌—학교를 뜻하는 라틴어의 ‘Schola’는 한가로움을 의미한다—을 재발견할 수 있으며, 발견에 기초한 학습은 협력·자발성·자유·책임감을 길러준다.<sup>56)</sup> 이런 학습의 교육학적 의도는 공동으로 작업하고, 발견하고, 투영하고, 말하고, 학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즐기는 가운데 실현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새로운 개혁을 위한 용기는 밑에서부터 온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답습될 뿐’<sup>57)</sup>이라는 네그트의 주장은 아주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 다시 보기 Die Schule neu denken》(1993)에서 헬무트 폰 헨티히<sup>58)</sup>도 다음과 같은 유사한 주장을 했다. ‘학교는 오로지 삶과 경험의 공간’으로서만 미래가 있다. 학교는 (민주적) ‘폴리스’여야만 한다. 삶의 문제들과 아이들의 학습 문제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헨티히가 말하는 ‘교육의 최소 성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 실천 가능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곧 새로운 학교의 특징이 될 수도 있다.

1. 삶을 허용하기.
2. 차이점을 인정하기.
3. 공동체 안에서 살기.
4. 전인적 인간이 되기.
5.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기.

56) P. Sommerfeld, 1993, p.71 이하.

57) O. Negt, 1994, p.2.

58) Hartmut von Hentig : 독일의 교육학자. 빌레펠트에 실험학교를 설립했다.

## 6. 학교는 학교로 남기.

프롬은 ‘반권위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에 관한 글을 통해 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학교정신’ 안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생명애호적 교사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 어머니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 보호의 감정—‘내가 될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2. 아버지와 같은 ‘책임’.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대해 자신의 연령에 걸맞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모성적 원칙과 부성적 원칙(이해심과 정의)은 서로 동등하게 병존하여 ‘체계’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한다.
3. 생산적 자극, 즉 육체와 정신과 심리를 총체적으로 동등하게 자극하는 것—춤, 음악, 노래, 미술을 통한 수업.
4. 의미 있는 삶의 기본 조건은 ‘흥미’이다. ‘흥미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서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세계와의 관계방식이다.’<sup>59)</sup>
5. 자기관리와 비관료적인, 즉 민주적인 지도원칙은 아동과 특히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폭넓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준다.

이상의 다섯 가지 원칙은 인간적 학교교육이라는 의미에서 학교를 민주적이고 교육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아발

59) E. Fromm, 1968a, GA IV, p.321.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건을 위한 ‘존재지향적’ 교육 안에서 프롬의 ‘삶의 기술’<sup>60)</sup>은 학교의 내용이 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원칙이 된다. 프롬이 말하는 ‘삶에 대한 사랑’, 즉 생명애호적 사상은 삶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태도인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의 과정 자체로부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성장으로부터 끝림을 받는다고 느낀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이 구축하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놀라워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낡은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기를 좋아한다. 삶에는 언제나 불안함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므로 인생의 모험조차 즐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의 생각은 기계적이지 않고 기능적이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총합의 구조를 선호한다.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어하며 폭력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sup>61)</sup>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아이들의 삶에 의미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를 추구하는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창조적 표현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지식과 방법을 제시한다. 노동학교나 스웨덴의 슬로이드<sup>62)</sup> 프로젝트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sup>63)</sup>, 새로운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통해 지성적·문화적·예술적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sup>64)</sup>

60) E. Fromm, 1947a, GA II, p.16.

61) E. Fromm, 1970i, GA IX, p.417.

62) Sloyd : 스웨덴에서 시작된 목공기술 교육. 1872년 네스에 초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장일, 마구馬具 세공, 석공, 페인트 도장 등을 가르치는 슬로이드 학교가 개설되었다. 그 후 슬로이드는 초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한층 다양화된 내용으로 초등·중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63) E. Fromm, 1970b, GA III, p.453; O. Jäger, 1998.

■ Helmut Wehr : 1950년 출생. 1986년부터 하이델베르크 교육대학의 일반 교육학과 교직원으로 근무했다. ‘교육혁신을 위한 세계연합 WEE’의 사무총장, 20여 년간 실업학교 교사 및 여러 실업학교의 상담교사로 활동하였으며,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 창립 멤버이다. 주요 저서로는 《휴머니즘적 교육행위의 모범으로서의 에리히 프롬의 비판 이론에 나타나는 주체 모델》(Frankfurt: Peter Lang Verlag 1989) 《에리히 프롬 입문》(Hamburg: Junius Verlag 1990) 등이 있고, 저술로는 〈인간-환경-관계를 보는 에리히 프롬의 시각에 관한 교육학적 연구〉(in: M. Zimmer, (Hg.): *Von der Kunst, umweltgerecht zu planen und zu handeln*, 2. überarbeitete Aufl., Osnabrück 1997, p.219-233) 등이 있다.

### [참고문헌]

Apel, H. J., 1995: *Theorie der Schule, eine historische und systematische Darstellung ihrer Grundlinien*, Donauwörth: Auer.

Beck, U. (Hg.), 1997: *Kinder der Freiheit*, Edition Zweite Moderne, Frankfurt am Main.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1996: ‘Jeder ist sich selbst der Nächste’, in: *Pädagogik*, Nr. 7-8, 1996.

Beck, U., und Beck-Gernsheim, E. (Hg.), 1994: *Risikante Freiheiten. Individualisierung in modernen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64) E. Fromm, 1960a, GA V, p.35 이하.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 Suhrkamp.
- Beck, U., und Beck-Gernsheim, E., 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Bernath, U., und Campbell, E. D. (Hg.), 1975: *You Are My Brothers. Father Wasson's Story of Hope for Children*. Huntington.
- Cohen, A., 1990: *Love and Hope. Fromm and Education, New York*.
- Frederking, V., 1994: "Die Welle" von Morton Rhue. Ein handlungs- und produktionsorientiertes Unterrichtsmodell', in: *Praxis Deutsch*, Nr. 21, 1994
- Fritzsche, K. P., 1998: *Die Stressgesellschaft. Vom schwierigen Umgang mit den rasanten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en*, München: Kösel.
- Fromm, E.: siehe die Nachweise am Ende des Bandes.
- Garnitschnig, K., 1998: 'Eine Theorie, innovative Ideen praktisch werden zu lassen', in: *Erziehung und Unterricht*, Nr. 1, 1998, S. 4-22.
- Hentig, H. von, 1976: *Was ist eine humane Schule?* München.
- 1984: *Das allmähliche Verschwinden der Wirklichkeit. Ein Pädagoge ermutigt zum Nachdenken über die Neuen Medien*. München.
- 1993: *Die Schule neu denken*, München und Wien: Hanser.
- Herz, O., 1996: 'Politik und Pädagogik brauchen Visionen. Zukunftsfähiges Deutschland', in: *Erziehung und Wissenschaft*, Nr. 4, 1996, S. 16.
- Hintz, D.; Pöppel, K. G.; Rekus, J., 1995: *Neues schulpädagogisches Wörterbuch*, Weinheim/München: Juventa.
- Jäger, O., 1998: *Projektwoche - Möglichkeit für eine humane Schule und Gesellschaft*, Neuwied und Berlin: Luchterhand.
- Johach, H., 1994: 'Zur gegenwärtigen Eskalation der Gewalt. Ursachen-Zusammenhänge-Lösungsansätze', in: *Jahrbuch der Internationalen Erich-fromm-Gesellschaft*, Bd. 5; *Vom Umgang mit dem Fremden*, Münster und Hamburg: LIT-Verlag, 1994, S. 127-154.
- Jugendwerk der Deutschen Shell AG (Hg.), 1997: *Jugend '97, Jugend und Politik. Die 12. Shell Jugendstudie*. Gesamtkonzeption und Koordination: Arthur Fischer, Richard Münchmeier. Opladen: Leske & Budrich.
-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Hg.), 1997: *Die Zukunft denken-Gegenwart gestalten. Handbuch für Schule, Unterricht und Lehrerbildung zur Studie 'Zukunftsfähiges Deutschland'*, Weinheim und Basel.
- Marcuse, H., 1972: *Der eindimensionale Mensch*. Neuwied, Berlin.
- Negt, O., 1994: 'Auf der Suche nach Orientierung und Kompetenz. Plädoyer für eine zweite Bildungsreform', in: *Erziehung und Wissenschaft*, Nr. 4, 1994, S. 2.
- Nyssen, E., und Schön, B. (Hg.), 1995: *Perspektiven für pädagogisches Handeln*,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 Olechowski, R., 1998: 'Grundsätze für eine Reform der Schule der Vierzehn- bis Neunzehnjährigen unter dem Aspekt einer "humanen Schul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Nr. 1, 1998, S. 23-36.
- Pongratz, L., 1991: 'Lebendiges Lernen mit Texten von Erich Fromm', in: J. Claßen, (Hg.): *Erich Fromm und die Kritische Pädagogik*, Weinheim und Basel: Beltz, S. 139-159.
- Rekus, J., 1994: 'Bildung heute-veränderte schulische Schwerpunkte', in: *Schulintern* Nr. 1, 1994, S. 1-4.
- Scarbath, H., 1992: *Träume vom guten Lehrer. Sozialisationsprobleme und dialogisch-förderndes Verstehen*, Donauwörth: Auer.
- Sommerfeld, P., 1995: *Erlebnispädagogisches Handeln. Ein Beitrag zur Erforschung konkreter pädagogischer Felder und ihrer Dynamik*,



Weinheim/München: Juventa.

Wallrabenstein, W., 1997: *Offene Schule-Offener Unterricht*, Reinbek bei Hamburg.

Wehr, H., 1997: 'Prometheus und Epimetheus', in: *Ethik und Unterricht*, Nr. 3, 1997, S. 10-12.